

보도설명자료 (‘17.8.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원전 2기분 설비 축소 합리화... 4차 산업혁명 전력수요
눈감아” (‘17.8.11. 매일경제)

“에너지 많이 쓰는 4차 산업혁명 반영않은 정책”
(‘17.8.11. 문화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이 4차 산업혁명 등 수요증가
요인을 반영하지 않음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

① 전력수요 전망시 전기차 확대에 의한 수요증가 효과를 既 반영했으며,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종합적으로 고려 중임

① 지난 7월 공개된 수요전망 초안에 전기차 확대에 의한 최대 전력수요
증가 효과가 ‘30년 기준 350MW 포함되었음

- 350MW는 제주도, 미국 캘리포니아 등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지역의
충전패턴, 국내 전기차 보급전망(‘30년 100만대)을 고려한 수치임
- 전기차로 인해 최대 전력수요가 증가하지만, 야간충전이 보편화되면서
전력피크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논의결과를 반영

② 전기차 이외의 4차 산업혁명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
현재 8차 전력수급계획 전문가 워킹그룹 내에서 논의 중

- IoT, 빅데이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과 스마트공장, 지능형전력망 등
감소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임
- 9월까지 전력수요 증가-감소 요인, 요인별 증감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
설문을 진행하여 수급계획 반영을 검토할 계획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(044-203-5240)
권순목 사무관 (044-203-5242)